

신식의 강박, 고백과 풍자 사이 — 『무정』의 양식적 특성과 서술적 거리—

이 상 진*

요 약

본고는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및 태도를 중심으로 이광수의 『무정』을 분석하여 개화지식인의 부정성에 대한 자기 고백에서 비판적인 풍자에 이르는 양식적 특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술자의 간섭 없이 인물 내면의 생각이나 지각 내용을 직접 제시하는 내적 독백은 주로 형식에 대한 형상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를 시간구조로 인한 착오, 욕망의 은폐와 서술전략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내면묘사와 독백은 이야기 시간을 지연시키고, 시간 체감에서 착오를 일으켜 사건의 졸속적 진행을 마치 신중한 고려 결과인 것처럼 포장한다. 고민과 갈등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형식의 부정적 욕망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효과를 준다. 근대적 주체의 발견과 자유에 대한 주장을 담은 논설도 형식의 세속적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것은 수차례의 깨달음과 성찰이 형식의 뒤편이지만 끝까지 긍정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서술자가 냉정한 거리를 두고 형상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무정』에는 김종렬이나 배학감, 김장로와 이형식 등 개화기 지식인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난다. 주로 서구의 신지식에 대한 허세와 과시, 무조건적 추종을 보여주어 신식에 대한 강박증이 희화화되고 있다. 또 신문물, 신지식과 교양에 대한 당대의 욕망과 현실의 격차가 풍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형식이 과도기의 유치함을 거쳐 스스로 각성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나지만, 마지막까지 낙관하고 실천력 없고 무지한 이상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자임이 거리를 두고 그려진다. 그는 춘원의 열등한 자아, 신식과 사회적 당위에 매몰된 개화지식인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무정』에는 비록 균열된 상태이나 다양한 서사장르가 팽아적 형태로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역시 신식의 강박이 낳은 이 작품의 새로움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이광수, 『무정』, 신식의 강박, 고백, 해부, 시간모순, 풍자, 서술적 거리

목
차

1. 문제제기
2. 고백의 역설, 욕망의 은폐와 시간모순
3. 허명 개화와 자기 풍자
4. 미완의 깨달음, 고백과 풍자 사이
5. 신식의 강박, 『무정』의 자리

1. 문제제기

『무정』은 근대의 서구적인 소설양식의 이입과 정착과정을 읽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그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무정』이 보여준 새로움은 이른바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소설(novel) 혹은 최초의 순 한글 장편소설로서 이 작품에 반영된 신사조, 그리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서사양식의 탄생에 초점이 있다. 접근 방식과 내용은 달라지고 있지만, 당대의 어떤 시대정신(근대성)을 반영하였고 또 어떤 점에서 새로운 소설방식(근대적 서사양식)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이 글은 『무정』¹⁾이 보여준 근대성의 내용과 서사 양식의 문제를 고백과 풍자

의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피고 새로운 해석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정』은 다양한 장르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근대소설, 애정소설, 연애소설, 계몽소설, 성장소설, 교양소설, 피카레스크 소설 등의 장르 규정이나 멜로드라마, 자서전적, 혹은 고백 서사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그 예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난 100년 간 수많은 격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무정』의 장르 규정은 로맨스에서 노벨로의 발전 혹은 진화 여부에 집착한 가운데 이루어져왔다.²⁾ 초창기부터 전 근대적인 요소의 타파와 계몽주의적 시각, 근래에는 사랑-연애의 감정과 담론 등이 근대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읽혀졌고 이런 요소의 반영이 근대적 소설양식의 조건을 충족해 주었다. 여기에는 장르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무정』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서구의 근대적인 서사장르로의 이행을 재단하여 설명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무정』의 전반부에서 발견되는 전자류의 이야기 방식이나 신파조의 서사, 〈채봉감별곡〉과의 유사성이 지적된 영채 중심의 기생 이야기 등은 고소설적 요소이자 로맨스적인 요소로서 노벨과 대립되는 것, 극복해야 할 전근대적인 장르적 특성임이 지적되었다.³⁾

1) 이 논문은 이광수, 김철 교수, 『바로잡은 『무정』』(문학동네, 2003)을 텍스트로 하여, 이하 본문에서 인용할 때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2) 일본 근대문학의 관념을 성립시킨 문학론으로 평가되는 쓰보우치 쇼오의 『소설 신수』이후 소설은 노벨의 번역어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문학적 진화론의 시각에서 로맨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이고 사회의 진화 결과 신흥 '소설:노벨'이 형성되었다는 시각이 자리 잡았다. (노구치 다케히코, 노혜경 옮김, 『일본의 '소설' 개념』, 소명출판, 2010, 31-33면.) 『무정』이 "서구(일본)의 근대적 제도 및 문화의 번역이라는 문학적 실천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지적(최주한, 『번역된 (탈)근대론으로서의 『무정』 연구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7집,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본의 장르 진화론적 시각은 오랫동안 『무정』의 근대소설적 특성을 설명하는 바탕이 되었다.

3) 이런 지적은 주로 고전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현경과 조동일은 『

1990년대 이후에는 근대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연구가 진행되고, 서영채의 지적대로 “보다 나옴”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⁴⁾ 최근에는 『무정』의 고백체적 특성, 혹은 내면의 발견에 주목한 논의들이 나타나면서 이 작품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고백이라는 제도가 근대의 산물임에 착안하여 이 작품에 나타나는 내면의 발견 혹은 고백적 특성을 식민지적 주체의 자각과정으로 보고 이를 (탈)근대성의 징표로 읽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근대적 주체의 내면의 전개가 온전한 각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몽담론과 어긋나고 균열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에 있다.⁵⁾ 본고는 이 균열과 모순이 결국 근대성의 내용과 그 양식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는 『무정』이 “서구적 장르의 갱신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소설 기술상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가능성”⁶⁾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영채를 중심으로 한 애정소설과 형식을 중심으로 한 교양소설 혹은 계몽소설의 경계선상에 있다⁷⁾든가, 모순된 양식의 공존을 “근대적 인식론과 로망스적 형식의 화음”으로 접근하여 “텍스트의 불안”을 지적하든가⁸⁾, 텍스트

『무정』이 새로운 소설이 아니라, 이전 소설과 근대소설의 교량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소설에 불과하며, 고전 영웅소설과 서사구조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성현경, 『무정과 그 이전 소설』, 『어문학』 32, 1975.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456-459면.

4) 황정현, 『이광수 소설연구사』, 고대 박사논문, 2009.

5) 이 내면의 발견은 개인은 물론 사회=민족을 만들어내는 규범으로 작동하는 감정에 주목한 논의를 비롯하여 조선적 정체성의 탐색인지 식민지 근대 주체의 내면에 기반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근대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최주한, 앞의 글.

6)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집탈 - 『무정』의 근대성』, 문학과비평연구회,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 새미, 2000. 117-136면.

7) 윤홍로, 『무정의 전통성과 근대성』, 이광수, 『무정』, 우신사, 1992.

가 형식적 비일관성⁹⁾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든가, “신소설과 변안소설 사이에서 진동”¹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무정』이 하나의 서사관습이나 양식에 의해 완성된 통일성을 지닌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서사관습이 혼합된 불안정한 작품임을 시사한다.

이는 『무정』이 창작된 시기의 문학장의 특성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정』이 연재된 1910년대는 다양한 담론양식이 시험되던 때였다. 신구(新舊), 동서(東西)의 서사물이 함께 유통되면서 문학적 관습이 충돌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학 양식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었다. 계몽성을 띠던 신소설이 사라져가는 자리에 일본의 신파극과 변안소설이 출현했다.¹¹⁾ 활자본 고소설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고 동경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학과 서사장르가 유입되고 있었다. 또한 이광수는 국한문혼용체로 썼던 『영채진』을 순 한글의 장편소설 『무정』으로 바꾸어 연재¹²⁾할 정도로 신속한 서사변형과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를 시도¹³⁾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무정』의 양식적 특성과 형태의 비일관성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주목하려 하는 것은 서술자(내포작가)와 인물의 거리와 서술자의 어조에서 발생하는 균열이다. 『무정』에는 인물과 밀착된 고백체적 특성과 인물과 풍자적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8) 조남현, 「근대적 인식론과 로망스적 형식의 화음」,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 지성사, 2012, 272면.

9) 염인수, 『초기 현대소설의 서술화법』, 고대 박사논문, 2014.

10) 이만영,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과 계도적 미학의 길 - 이광수의 문학과 『무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센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11) 이만영, 앞의 글, 406면.

12) 이희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301면.

13) 이선경, 「1910년대 이광수의 장르 실험- 장르 간 영향과 교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9, 2015.

해부적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고백과 풍자는 특히 형식을 비롯한 지식인 인물의 지적 태도와 내용의 서술에서 주로 나타나며¹⁴⁾, 이 작품에서 읽어내려는 근대성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된다. 앞서 말하자면, 계몽과 자유연애, 근대적 각성을 보여주는 주체에 대한 끝없는 거리조정은 신식의 강박에 시달리는 당시 지식인의 경박함에 대한 이광수의 자각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백과 풍자의 양식적 특성을 통해 『무정』을 재해석하되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양식적 실험 내용과 비일관적인 서사구조를 밝히고, 소설사적 위치와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고백의 역설, 욕망의 은폐와 시간 모순

고백(confession)은 내향적이고 지적인 산문형태이다. 한국문학에서는 1910년대에 현상윤, 양건식의 작품에서 1920년대 염상섭의 초기 3부작으로 이어지는 고백 서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광수의 초기단편소설들은 자신의 유학생 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서사적’ 특징과¹⁵⁾ 고백서사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¹⁶⁾ 같

14) 프라이에 의하면 고백과 해부는 산문픽션 가운데 지적인 양식에 해당되며 내향적/외향적인 특성으로 구별된다. N.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6, 429-447면.

15) 서은혜는 1910년대 이광수의 단편들을 분석하면서 작가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인물이 모범적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모습으로서 형상화되거나, 혹은 작가가 가진 신념 체계나 이상을 공유하는 인물의 목소리가 강하게 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은혜,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자기-서사적’ 특성』, 『춘원연구학보』 7. 2014.

16) 손자영,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고백서사적 특징 연구』, 『이화어문논집』 42집, 2017.

은 시기에 발표된 『무정』에도 자전적인 면¹⁷⁾과 고백서사적 특징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이미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우리 근대문학의 성립을 고백 서사와 연결시켜 분석한 것으로, 고백양식을 주체의 자각을 통한 자아의 각성과 내면의 발견이라는 근대의 문학원리로 보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정』의 고백서사적 특징을 시간구조와 착오, 심리묘사의 전략, 논설적 주장과 서술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1) 시간 착오와 장고(長考)

당대의 김동인도 느꼈듯, 『무정』의 특별함과 새로움은 길이에 있다. 총 126회 분량으로 “조선국어체”로 유래가 없는 길이에 적절한 구성을 취한 것¹⁸⁾이 당시 다른 작품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 길이에 비하면 『무정』의 사건은 대단히 간단하다. 형식이 선형을 만나고 영채가 찾아오고, 청량리 사건을 확인하고, 영채를 찾아 평양에 다녀오고, 선형과 약혼식을 하기까지 5일이 전체의 3/4, 이들이 다시 유학길에 올라 재회하여 삼랑진 수해를 목격하고 음악회를 하고 떠나는 사건까지 2일간의 이야기가 그 나머지를 이룬다. 이렇게 겨우 7일간 벌어진 사건에 전후 거의 20년에 걸친 이야기가 소급제시와 후일담 형태로 보태지고, 인물의 내면 묘사와 서술자의 논평 등이 삽입된다.¹⁹⁾

17) 『무정』은 언제 시기부터 이미 그 자전적 특성에 대해 의심받아왔다. 춘원은 후일 연애라는 것도 모르고 기생이라는 것도 대해본 일이 없었으며 신우선이라는 인물 하나밖에 모델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광수, 『문단 고행 삼십 년 - 서백리아(西伯利亞)에서 다시 동경으로』, 『조광』, 1936. 5.

18) 김동인은 『무정』이 ‘량에 있어서 아직껏 朝鮮에서의 初有인 동시에 질에 있어서도 아직껏 조선 사람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인, 『春園研究』, 신구문화사, 1956, 28면.

19) 정재석은 『무정』에 나타난 정보제시의 과잉성을 적시하고, 그 원인으로 연재소

『무정』의 시간배열을 살펴보면 소급제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김정자는 영채와 형식이 헤어진 이후의 일들이 ‘칠팔 년 전’이라는 어구로 4번 이상 길게, 영채가 기생이 된 이후의 일들이 ‘육칠 년 전’이라는 어구로 5번 이상 반복하여 서술되며 이 외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다회적으로 반복 서술된다고 정리하고 있다.²⁰⁾ 시간의 변화와 시점(時點)을 드러내는 표현은 독자가 소급제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서술자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인물의 내면 묘사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가 사건 시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체감하게 되는 착오가 벌어질 수 있다.

『무정』이 방대한 분량을 다루면서 플롯을 잘 갖춘 셈이라고 평하는 김동인조차 형식과 선형의 첫 만남에서 약혼까지 수개월이 걸린 것으로 착각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형식을 자기 딸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수개월간 서로 보게 하고, 인제는 다 되었거니 하고 형식을 불러서 혼인을 청”하였다고 쓰고 있다.²¹⁾ 그러나 이 결정은 실제로 단 5일 만에 이루어졌다. 김동인의 오독에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적 추측이 선입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리 신식에 대해 무지하다고는 하나, 만만치 5일 만에 약혼을 받아들이고, 함께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며, 또 결정한 그날로 약혼식을 거행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더구나 옛 은사의 딸이자 정혼한 바 있던 영채가 겁탈사건으로 자살을 한(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토리 시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자주 삽입되는 인물의 내면묘

설, 전대소설과의 친연성, 소설적 형상화의 미흡성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재석, 『한국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새미, 2004, 91-95면.

20) 김정자, 『한국근대소설의 시간기법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84. 44-45면.

21) 김동인, 앞의 책, 34면.

사도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영체가 기생이 되어 찾아온 후 형식은 영체의 순결을 의심하고 다시 연민을 느끼고 행복을 꿈꾸다가 또 의심하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한다. 지나치게 변화가 심하여 긴 서술시간 속에 배치하여 속도를 늦추어 전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연성을 얻기 어렵다.

그러코 보면 그는 실로 기성의 몸이 되었는가 그 은혜만흔 박선성의 짜님이 그만 기성의 몸이 되었는가 세상을 위하야 몸과 맘을 다 바치던 열성있는 박선성의 짜님이 그만 세상의 유혹을 바다 부랑한 남자들의 놀이기 감이 되었는가 혹 었던 유아랑과 오날저녁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한 시간이 오기전에 잠간 나를 차근것이야닌가 (118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서술의 양이다. 형식이 영체의 순결에 대해 의심하고 갈등하는 내용은 8회부터 시작되어 수시로 삽입된다. 심지어 16-17회, 24-25회는 의심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이것은 형식이 영체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였는지를 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영체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상경하여 곧바로 선행과 약혼하고 미국유학을 신속하게 결정한 행동에 대해 긴 변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내면 고백의 열거가 이야기 시간을 지연시키고, 줄속으로 전개된 사건을 마치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려진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백과 은폐

『무정』은 시간 구성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이야기 전개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 70회로 쓰여진 『영채전』이 126회의 연재

소설 『무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의 변화는 물론 중심인물과 주요 서사의 결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부담을 안고도 무리한 시간구성을 보여준 것은 사건의 전개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²²⁾

이 작품에서 내면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형식이다.

어제 영치가 나를 츠즈움도 이러흔 괴로움을 견디다 못햐야
 맛참니 니게 의탁할양으로 온것이안일가 와서 니 의복과 거처
 가 극히 빈한함을 보미 나에게 구원을 청햐야도 무의할줄을
 알고 중도에 말을긋치고 도라갓슴이안일가 이러케 생각햐면
 츠긋의 빈한함이 더욱 슴햐기도햐고 붓그럽기도햐다 과연 형
 식은 영치를 구원할 츠격이 엷다 만일 월향이라는 기성이 진
 실로 영치라햐면 과연 형식은 영치를 구원할능력이 엷다
 (164-165면)

위에서 볼 수 있듯, 종종 1인칭 서술로 형식의 내면이 인용부호 없이 삽입되기도 하고, 형식을 초점자로 하여 서술되기도 한다. 서술자의 외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 주인공의 내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점이 수시로 덧입혀지는 것이다.²³⁾ 하타노 세츠코는 형식의 내면 묘사와 독백, 행동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무의식에 억압된 원망을 읽어내고 있다. 과장되다 싶게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형식에게 떠오르는 과거는 자기 편리를 위해 왜곡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에서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22) 하타노 세츠코는 『무정』의 집필 당시 문학에서 심리학이 갖는 중요성은 이미 일 반화된 상식이었고,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었으므로 춘원은 이를 알고 이 작품에서 시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하타노 세츠코, 『무정을 읽는다』, 최주한 옮김, 소명출판, 2008, 209-210면.

23) 양문규, 『한국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2003, 98면.

시간지연은 영체의 순결 훼손을 기정사실화하고, 영체의 죽음 혹은 행방불명에 대한 기대를 은폐하려는 장치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상류층에 편입하여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형식에게 걸림돌이 될 뿐인 영체의 존재를 삭제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은 영체를 구원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영체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심리가 망각, 억압, 투사, 반동형성 등의 심리기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⁴⁾ 이 때문에 형식의 의심과 심리적 동요, 과장된 감정 표현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의 내면 고백의 유치함을 그저 “과도가 청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혼란”²⁵⁾으로 보는 그간의 해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3) ‘자기중심주의’의 표백과 허구성

『무정』에는 서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삽입부가 많이 나타난다. 이 중 편집자적 논평이나 초점화된 인물의 사상적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고백체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작가의 사상이 작품에 투입해 들어온 것으로 이를 그저 서술자의 권위적인 서술로 채우고 마는지, 혹은 작가의 지적 견해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누군가를 내세우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무정』에서 내면 독백은 때로 장황한 논설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문제의 53회이다. 『무정』은 순 한글표기로 되어 있으나, 53회는 한 회 전체가 논설형태인데다가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영체는 청량사 사건 후 유서를 남기고 떠나버린다. 53회는 이 사건을 두고 여성의 정절문제에 대한 신우선의 판단과 이형식의 판단을 비

24) 하타노 세츠코, 앞의 책, 212-269면.

25) 김영찬,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표상』, 『상허학보』 16, 2006.

교하여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의 생명(生命)의 발현(發現)은 다종다양(多種多樣)하니
 혹 충(忠)도 되고 효(孝)도 되고 명절(貞節)도 되고 기타 무수
 무한(無數無限)한 인스현상(人事現象)이 되는것이라 그중에
 무릇 민족(民族)을 따라 혹은 국정(國情)을 따르고 혹은 시대
 (時代)를 따라 필요상 이 무수무궁(無數無窮)한 인스현상중(人
 事現象中)에서 특종(特種)한것 일기(一個)는 또는 수기(數個)
 를 취하여야 만반인스행위(萬般人事行爲)의 중심(中心)을 삼으
 니 초소위(此所謂) 도(道)요 덕(德)이오 법(法)이오 료(律)이라
 무릇 스회덕생활(社會的生活)을 완성(完成)하라면 그 스회(事
 會)의 각원(各員)이 그 스회(事會)의 도덕법률(道德法律)을
 권々복용(拳々服膺)함이 마땅하디 그러나 결코 이는 생명(生
 命)의 전테(全體)는 아니니, 생명(生命)은 하여(何如)한 도덕법
 른(道德法律)보다도 위대(偉大)한것이라(332-333면)

전체적인 어조나 내용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하나의 독립된 산문
 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용은 인간의 도덕률이나 제도보다 생
 명이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정절을 훼손하였다고 하여 생명을 끊으
 려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찌되었든 “자기의 중심적 의무를 생명
 으로 삼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술자가 형식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의 서사맥락으로 볼 때 형식의 인물 형상
 화와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다. 서술자는 형식이 이론으로는 이러하
 나 영채를 ‘늙은 여자’라 하고, ‘순결, 열렬한 구식 여자’로 부르는 문
 제를 지적하면서 일시에 형식과 거리를 둔다. 결국 이 논평적 서술
 은 형식이 아닌 서술자(내포작가)의 생각을 노출시킨 것임을 짐작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와 욕망이 형식의 인물형상화와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65회의 논평적 서술과 연결된다. 65회는 평양에서 상

경하는 기차 안에서 형식이 생각하는 내용으로 형식에게 초점화되어 있다. 그는 그간 자기의 지(知)의 판단과 정(情)의 감동으로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을 따라 타동적으로 살아왔으니 이는 자신을 죽이고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깨달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의지와 위치와 사명과 선택과 있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형식의 ‘자기의 발견’ ‘참 내면의 발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통과 관습의 제약이나 현실과 타자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이면서도 개별적인 가치를 갖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는”²⁶⁾ 중요한 계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후 서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체성의 발견이라는 이 거창한 자각은 이 대목에서 형식에게 비굴한 변명과 핑계를 마련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채의 죽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경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얻는다. 그것은 이 ‘자기중심주의’의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과거의 약속과 의리에 매여 영채를 찾아 혼인해야 한다는 의무와 속박에서 형식을 해방시켜주며, 세속적 욕망을 향한 형식의 행위 또한 합리화시킨다. 이 부분에 이어 형식이 자신의 무정함에 대해 반성하고 상처받은 유년기와 성장과정에 대해 회상하는 것을 길게 삼입시킨 것도 형식의 전후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작용한다.

53회와 65회에 다소 길게 논평조로 삼입된 내용은 인간이 도덕 관습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금일 아한청년과 정육(今日 我韓青年과 情育)』 등 1910년대 춘원의 논설내용과 연결된다. 이 점에서 형식은 춘원의 생각을 대변하는 주제적 인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서사 속의 형식은 그러한 내용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에 이미 결함이 많은 인물임을 내포작가는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식은 서술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리 조절을 당하는 모순투

26) 김영찬, 앞의 글.

성이의 인물이 되고 있다.

『무정』은 서술자가 인물의 독백에 대해 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후일담으로 처리하는 등 메타서술을 함으로써 미화성을 훼손시키²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집자적 전지성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인물들의 인생과 도덕 등에 대해 작가가 간섭하고 일반화하려 함으로써 ‘논설을 쓰기 위해 부차적으로 이야기로서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²⁸⁾도 유효하다. 이런 지적은 이 작품의 균열적 특성을 적시한 것이다. 한편 『무정』의 고백체는 계몽이라는 거대 담론을 담기에 버거운 틈새가 존재하며, 인물의 개인적 욕망을 은폐하고 이기적인 결정의 졸속성을 위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이 소설의 고백체가 근대적 문학원리로서 주체의 자각과 각성을 향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3. 허명 개화와 자기 풍자

우리 소설의 풍자 혹은 골계의 전통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개화기에 사회비판적이고 계몽적인 특성이 강화되면서 과거 고소설에서 보여주던 골계성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다.²⁹⁾ 하지만 권영민은 개화기 계몽담론의 서사화 방식 중 하나인 토론체,

27) 우찬제, 「서술상황과 작가의 욕망의 관련양상 연구-이광수의 『무정』의 시점 분석」, 『현대소설연구』 5, 1996.

28) 조남현, 앞의 책, 270면.

29) 조건상은 작가의 피상적 현실인식과 지식인으로서의 우월감에서 계몽, 설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층민의 생활감정과는 거리가 먼 지식인의 이상주의적 행동양식만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어 골계성을 찾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조건상, 『한국현대골계소설연구』, 문학예술사, 1985, 22면.

혹은 대화체 서사를 우화 혹은 풍자양식으로 지칭하면서 당시에도 중요한 전통갈래였음을 확인시키고 있다.³⁰⁾ 이들 작품은 등장인물의 갈등이 성격과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되고 있는 주제와 가치와 관념의 대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적인 갈등이 흥미의 초점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화, 토론, 연설 등에 의해 그 내용이 기술되는 담론적 특징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³¹⁾

개화기 소설에서 미미하나마 유지되던 골계적 양상은 이광수에 이르러 엄숙한 계몽과 설교적 입장에 의해 가려지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³²⁾ 김지원은 춘원이 “비판, 비난, 폭로, 공격 등 다양한 풍자적 수법을 동원하면서도” “계몽이라는 문화적 기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해학과 풍자의 예술적 처리에 관심을 쏟지 않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춘원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김동인의 몇몇 작품에서 풍자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³³⁾

그러나 이런 지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광수가 해학적 표현이나 ‘예술적 처리’에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자적인 서술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정』에서 지적인 갈등, 가치와 관념의 대립이 풍자의 초점이 되어 사회와 시대를 비판

30) 그는 서사구성의 원리로 허구성과 경험성을, 서사 가치지향으로 이념성과 실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근대계몽기 서사양식을 우화·풍자, 전기, 신소설, 역사기록으로 나누었다. 개화기 서사물에 대한 기존의 분류를 좀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결과로서, 토론체 서사를 우화·풍자 양식으로 본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96-109면.

31) 권영민은 〈쇼경과 안증방이 문답〉, 〈향로방문의성이라〉, 〈거부오회〉, 〈시사문답〉, 〈병인간친회록〉, 〈절영신화〉, 〈향객담화〉 등을 풍자적인 작품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대화, 토론, 연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지배세력의 무능과 부패,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과 경제적 침탈, 봉건사회의 붕괴과정에서 드러난 훼손된 삶의 가치 등을 핵심적 쟁점으로 다루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출판부, 2008, 27면.

32) 조건상, 위의 책, 25-28면.

33) 김지원,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 1983, 117-120면.

하는 부분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부정적인 인물형상화기법, 이형식의 내면고백과 서술자의 거리 속에서 '자기풍자'의 기제를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

1) 허세 혹은 신지식 무식담

『무정』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결함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신지식에 대한 허세에 방점이 가 있다. 18회에서 21회까지, 이형식이 근무하는 경성학교의 학생 김종렬과 학감 배명식의 사람됨과 이들의 부정적인 행각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이 부분에서 인물에 대한 거리두기, 조롱과 웃음을 동반한 풍자적 서술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형식을 찾아온 김종렬이라는 학생은 매사에 형식과 대립하고 형식을 미워하는 인물이다. 나이가 많고 공부에 재주는 없으나 일을 꾸미는 수단이 능란하여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흥미로운 것은 김종렬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근거가 그의 지적수준, 그것도 신지식의 일천함에 있다는 데 있다. 나폴레옹을 유일한 숭배인물로 삼고 모든 것에 나폴레옹을 인용하여 "검나(검은 나폴레옹)"라는 별호까지 얻었으나, 정작 김종렬은 나폴레옹 전기도 읽어본 적이 없고, 아는 바가 없다.

그는나폴레옹이 범국황제인줄을 알지마는 원리 지중히중에 있는 코르시카섬 사람인줄은 모른다 워털루에서 영국 장수 윌링톤에게 패하야 태셔양중 센트헬레나라는 외로운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다던 말을 렉스교스에게 들었스네 그는『워털루』라든가 『센트헬레느』라든가하는 비오기어려운 말은 다 니져바리고 다만 나폴레옹은 패하야 티셔양중 었던 섬에서 죽었다고 기억흘뿐이라(132면)

김종렬은 스트라이크이라는 말의 뜻은 자세히 모르거니와 베스틀에스트라이크이란 말이 잇슴을 보건디 대체 학교를 공격하논 것이어니호엿다(137면)

인용부에서 짐작할 수 있듯, 김종렬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신지식의 일천함, 지적 허풍과 허술함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배학감에 대한 형상화도 마찬가지이다.

일후 형식이 도롱검 비학감에게 물었다

「선식의 신학설은 뉘 학설을 근거로 호것시오닛가 페스탈룻씨오닛가 엘렌케-오닛가」

비학감은 페스탈룻씨가 누구며 엘렌케-가 누구지 한번 들은 듯은 호건마는 얼는 생각이아니 논다 그러나 조선 일류교육가가 삼스류의 교육가가 아는 일흠을 모른다흠도 슈치라 이에 비학감은 썰스 우스며

「네 나도 「푸스탈」과 「얼는커」의 학설은 보았지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다이오쑤레「時代遲」원다」한다 「페스탈룻씨」와 「엘렌케-」라는 말을 니져바려 「푸스탈」 얼는케」라호리만콤포 무식호면서도 그네의 학설을 다 보았다호는 비학감의 심정을 도로혀 불상히녀겿다(141-142면)

경성학교의 학감 겸 지리 역사를 담당하는 배명식은 동경고등사범을 졸업한 학력을 자랑하며, “일본 모든 일류 교육가보다도 뛰어난 새 학설과 새 교육의 이상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형식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듯 그는 개화기의 신교육자로서의 당 알고 있어야 교육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페스탈로치나 엘렌케이 같은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그들의 학설이 이미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이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전통 소화(笑話) 중 무식담과 유사하다. 무식담은 어리석거나 모자란 사람의 이야기인 우행

담의 하나로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무식담은 인간의 허위와 가식을 풍자하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특히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식인층의 소화라 할 수 있다.³⁴⁾ 위의 인용부에서 형식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허위와 가식을 풍자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이형식과 서술자의 지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형식은 신지식을 전수할 자격을 갖춘 긍정적인 교사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세와 과시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후반부에 가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들이나 아는 것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형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형식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주변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자중에 즈기가 홀로 신문명을 리히하고 묘선 전도를 동견「洞見」, 호는 능력이 잇는줄로 생각한다 서울안에 수빅명되는 교스는 모도다 묘선인 교육의 의의「意義」를 모르고 기계모양으로 산술을 가라치고 일어를 가라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과연 형식의 호는 말에나 일에는 별로 써여난것이 업섯다 형식이가 큰 진리인드시 열심으로 호는 말도 듯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을 주는바가 업섯다 다만 형식의 특식은 영어를 만히 석고 서양유명호 사람의 일흠과 말을 만히 인용호야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못할 말을 길게 흠이엇다 형식의 연설이나 글은 서양글을 직역호것갓갓다(424-425면)

68회부터 70회까지는 이형식이 경성학교의 교사로서 고민과 교육자로서의 교육관, 지적 능력 등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학생

34) 서대석, 『韓·中 笑話의 비교연구 - 無識譚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5집, 2006. 2.

을 사랑하여 이들을 위해 열정을 바친 4년간의 행적이 서술³⁵⁾되면서 동시에 그의 인격에 대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 인용된 부분만으로 볼 때 이형식은 배학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사로 보인다. 그리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그저 “영어를 만히 석고 서양유명훈 샤름의 일홈과 말을 만히 인용”하며, “연설이나 글은 서양글을 직역한 것”(425면)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설의 마지막에도 형식은 서술자에 의해 ‘모르면서도 아는 채하는’ 사람의 하나로 표현된다. 전반부의 서술자의 어조와 달리, 이 부분에서는 형식으로 대표되는 당시 신지식인들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느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식의 강박에 의해 아는 척을 해야만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당시의 풍경을 해부하면서 메니포스가 되어버린 형식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별명 부르기이다. 별명은 풍자의 전형적 수법의 하나로 인물을 결점에 종속시켜 유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³⁶⁾ 앞의 김종렬은 나폴레옹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를 존경한다고 하여 ‘검나’라는 별명을 얻었고, 배학감은 그의 사회적인 태도의 졸렬함과 부정성 때문에 암편, 여우, 개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고 소개된다. 이형식의 경우도 ‘사상가’ ‘철학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는 “너는 생각이나 하여라 실디에는 아모것도 못하겠다”(426면)는 조롱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가 가진 지식의 허술함 혹은 그 과시가 가져온 반어적인 의미를 가진 별명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형식을 포함한 김종렬과 배학감³⁷⁾을 희화화시켜

35) 이 작품의 자전성을 연구한 오노 나오미는 경성학교의 체험은 이광수의 두 번째 오산학교 경험을 옮긴 것으로서, ‘열패의 땅을 떠나 자기 구제와 재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쓴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小野尙美, 『李光洙 『無情』을讀む』, 『朝鮮學報』第163集, 1997.4.); 이유진, 『일본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학보』 10호, 2017. 6. 에서 재인용.

36) 양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1992, 21-23면.

개화기 지식인층이 서구의 신문명 수입에 얼마나 강박적이 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식에 대한 강박증은 신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 때문에 신지식에 대한 허세와 과시가 나타났음을 신식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보여준 것이다. 『무정』에는 이렇게 신문물, 신지식과 교양에 대한 당대의 욕망과 현실의 격차가 풍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혁명개화 비판과 모순

김동인이 “朝鮮의 過渡期의 先覺者然하는 사람들을 비웃기 爲하여” 창조한 인물³⁷⁾로 본 김장로는 김선형이라는 신식여성의 아버지이자 형식에게는 미국유학과 출세의 탄탄대로를 마련해 줄 후원자이다. 그러나 초반의 형식에게는 비판 대상이 되는 종교인이고 자신을 주눅 들게 하는 부유층이며, 박진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얕은 지식의 소유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신지식인으로 그려진다.

형식은 아무 지식도 덕행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은 후 쟈 체하는 태도를 비난한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인으로서 치부에 성공한 김장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김장로의 집에 가는 길에 그는 “두벌옷도 가지지말라는 예수의 스도”가 “기명하면 쌍도 사고” 은행 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 집도 사고³⁸⁾, “슈십인 하인도 부리는”(42

37) 이 두 인물은 풍자의 대상인 동시에 이형식의 부정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다. 배학감은 영채의 정절을 훼손시켜 형식의 곁을 떠나도록 하였으며, 김종렬은 월향(영채)의 관계를 문제 삼아 형식으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두도록 주동한다. 교사와 학생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인물에 의해 형식은 제자리를 빼앗겼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형식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는 인물이 된다.

38) 김동인, 앞의 책, 29면.

면)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표출한다. 선형과 영채를 만난 후에는 그 둘을 비교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과 부유층 일반의 악행을 다소 과장하여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김장로를 비판하는 이형식과 서술자, 내포작가의 거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장로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79회에서 83회까지이다. 수회에 걸쳐서 김장로의 서양식(신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와 흉내 내기, 무식함이 낱낱이 고발된다. 초반과 달리 비판과 풍자의 주체는 형식이 아니라 서술자이다. 이미 형식이 김장로의 유행과 약혼제의를 암묵적으로 수락한 이후이므로 형식과 김장로의 거리는 줄어들고 서술자와 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김장로는 방을 서양식으로 꾸밀뿐더러 옷도 양복을 만히 입고 잘 써에도 서양식 침상에서 잔다 그는 서양 그중에도 미국을 존경한다 그리서 모든것에 서양을 본바드려한다 그는 과연 이십여년 서양을 본바닷다 그가 예수를 믿는것도 처음에는 아마 서양을 본밧기위홈인지 모른다 그리하고 그는 즈기는 서양을 잘 알고 잘 본바든줄로 싱각한다 (중략)

그는 과연 무식하다 그가 들으면 성도 너러니와 그는 무식하다 그는 눈으로 슬적 보아가지고 서양문명을 씨달을줄로 안다 허기는 그에게는 그밧게 더 쥬흔 방법이 업다 그러나 눈으로 슬적 보아가지고 서양문명을 알수가잇슬가 십년 이십년 칙을 보고 선싱피 듯고 제가 싱각햐야도 특별히 지주가 잇고 부지런하고 눈이 밝은 사롭이라야 처음보는 남의 문명을 씨달을 동 말동햐거던 김장로가 아모리 텃질이 명민햐다한들 칙 한권 아니 보고 무슨 지조가 복잡흔 신문명의 참뜻을 씨달으리오 (후략)(472-475면)

39) '은행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집도 산다'는 내용은 이광수가 연재본을 단행본으로 발간하면서 삽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표현은 1918년 신문관·동양서원에서 출간된 단행본에 처음 나타난다. 이광수, 김철 교주, 앞의 책, 42면.

『무정』의 79회 전체와 80회 전반은 김장로에 대한 풍자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식이 좋아서 서양옷을 입고,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으로 살고, 서양을 본받기 위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서술은 그의 무조건적인 추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경계로 마무리된다. 신문명의 참뜻을 깨달으려면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수십 년을 공부해도 어려운데 김장로는 ‘눈으로 슬쩍 보아 가지고’ 서양문명을 깨달은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의 신식 추종은 다시 이 작품의 가장 희극적 장면인 약혼식으로 이어진다.

장로는 형식과 선형을 번갈아 돌아보더니 목스를 향하여
 『엇지하면 죠홀가요』 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해야 본 경험 없는 장로는 실로 엇지하면 죠홀지를 모른다 무론 목스도 알 썩음이 없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에 모른다 홀수도 없다 그리서

『우리가 지금 인류에 대스를 의론하는 터인데 위선 하늘의 기도를 올립시다』 하고 고기를 숙인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기를 숙이고 손을 무릅우에 인저다 (중략)

장로는 엇더케 말을 해야 죠홀는지 모르는 모양으로 올흔 손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더니 부인의 묻져 말하는 것이 울호리라 하여 량반스럽게 느럭々々 혼 목소리

『여보 니가 형식씨에게 약혼을 청하였더니 형식씨가 승낙을 하였쇼 부인의 생각에는 엇더시오』 하고는 즈기가 경위있게 신식답게 말한것을 스사로 만족하여 하며 부인을 본다 부인은 앓가 두리 서로 의론한것을 시삼스럽게 또 못는 것이 우습다 하면서도 무엇이나 신식은 다 이러하거니하여 붓그러운드시 잠간 몸을 움즈기고 고개를 숙이며,

『감스합니다』 하였다(487-489면)

이 장면은 당대의 독자 김동인이 지적하고 있듯, “당시 조선의 형

태를 너무도 여실히 그려낸 ‘일장의 희극’⁴⁰⁾이라 할 만하다. 이들은 신식으로 하기 위해 연습한 대로 각자에게 의견을 묻고 승낙을 얻으며, 또 신식 혼인 경험도 없으면서 그저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신식인 양 생각하고 약혼식을 진행한다. 결국 전반을 지루하게 이끌던 이형식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졸속으로 마무리된다. 신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김장로의 금권력과 계획된 행동에 의해 추동되어 이형식은 ‘쫓대 없고 변덕스런 희극배우’가 되고 마는 것이다.

4. 미완의 깨달음, 고백과 풍자 사이

『무정』에서 서술자와 가장 즐다리기를 많이 하는 인물은 이형식이다. 그는 가장 자주 초점화 되고 가장 많이 목소리를 드러내지만, 또한 가장 핵심적인 풍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기모순에 빠져 찰나의 풍향변화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인물”로서 나름대로 일관된 성격을 지녔으며⁴¹⁾ 김동인의 지적대로 “쫓대 없고 정견 없고 자기의 주장이 없는 인물에게 ‘대나무작대기’를 접한 것 같이 초인적이며 거인적인 사상을 머금”기에는 문제가 있다.⁴²⁾ 감정의 극단적 변화와 가벼움, 경솔한 판단과 행동, 영채의 정절을 의심하는 지루한 내면 독백, 지식인이자 교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생각 등은 굳이 서술자가 어조나 거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형식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특징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 형식은 이 근대적인 소설의 주인공, 계몽의

40) 김동인, 앞의 글, 34면.

41)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90-91면.

42) 김동인, 앞의 글.

지도자가 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도덕적, 지적으로 결함이 많은 인물로 형상화된다.

초반의 형식은 촉망받는 젊은이이며 존경받는 선생인 것처럼 그려진다. 그는 김종렬과 배학감의 허세를 조소하고 김장로의 치부(致富)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지식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장로에 종속되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부분부터는 서술자의 거리두기와 풍자적 어조가 자주 나타난다.

형식은 엇지홀줄을 몰났다 평양도 가야하겠지만은 김장로의 집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헌것긫기도했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영치의 시체를 차자가기로 결심했었던것을 바리고 금시에 선형에게 취해야 「네」하기는 제 마음이 붓그러웠다 「선형과 나와 약혼」한다는 말은 말만 들어도 깃벳다 영치가 마참 죽은것이 다형이다 하는 생각까지 난다 게다가 「미국류학」! 형식의 마음이 안이플리고 엇지하라 사랑하던 미인과 일성에 원하던 서양류학! 이중에 하나만이라도 형식의 마음을 쓸만했거든 하물며 둘을 다! 형식의 마음속에는 「니게 큰 복이 돌아왔고느」하는 소리가 안이발홀슈가 업다(458면)

노파로부터 자신의 무정함을 지적받고 영체의 시체를 찾으러 평양에 다시 가겠다고 형식은 김장로의 제안에 곧바로 기쁨에 들뜬다. ‘미국유학’ 약속이 그를 무디게 하고 만 것이다. 직전까지 자신이 영체를 죽였다는 자책으로 괴로워하던 그가 영체의 죽음을 심지어 다행으로 여기게까지 된다. 영체의 죽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치가 마참 죽은것이 다형이다”라고 확신하고, “사랑하던 미인과 일성에 원하던 서양류학”을 하게 된 점을 기뻐하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서 서술자의 냉소가 느껴진다.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식은 내포작가의 욕망과 의지를 대변해줄 수 있는 주제적 인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

사실상 여기에서 이어지는 약혼식 장면은 김장로에 대한 풍자일 뿐 아니라 형식의 변모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약혼식을 할 때, 모두가 중시한 것은 ‘신식’이었다. 그들은 혼인에 대한 각자의 솔직한 생각을 묻는 것이 신식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질문과 대답을 하였으며, 신식약혼식이 기독교식이라는 데 쉽게 합의했다. 서술자는 이 약혼을 “장난 모양으로 혼인이 결정되고 장난 모양으로 공부를 마치고 성례하기로 결정”한 “위험한 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신식추종의 허술함에 대한 경계이자 이후에 일어날 새 국면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약혼 후 형식은 ‘선형과 미국’에만 희망을 걸고 지나간 시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만 갔다 돌아오면 만인이 다 자기를 우러러 보고 공경할 것이라고 자만하는 어리석음조차 보인다. 선형의 사랑을 얻기 위해 “평생에는 우습게 말도 하고 조롱도 하던 용모, 재산, 지위”를 부러워하게도 된다. 미국유학조차 조선의 문명을 위한다는 것보다 선형 한 사람의 사랑을 위한 것으로 변모된다.

형식의 모든 희망은 선형과 미국에 있다 기성집에 갔다고 남들이 시비를 하고 돈에 팔려서 장가를 든다고 남들이 비방을 하더라도 형식에게는 모다 우수었다 텃사람이 다 즈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더라도 선형 한 사람이 즈기를 사랑하고 칭찬하면 그만이다 또 즈기가 미국에 갔다가 도라오는 날이면 만인이 다 즈기를 우러러보고 공경할 것이다 (중략) 길에서 맛나는 여러 사름들도 이제는 즈기와는 종류가 다른 불상한 사름갓치 보인다 더구나 이전에는 즈기의 동무로 알아오던 주인로파가 지극히 불상하게보이고 갑자기 더 높고 쪽으라진것 갓치 보인다(95회, 555-6면)

하지만 선형은 다르다. 그녀는 형식을 선택한 것이 연민과 사랑을

혼동한 결과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처음부터 이상형이 아니었으나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 약혼이 진행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때 형식에게 날아든 병국의 편지는 신식으로 치른 약혼식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병국은 편지에서 예수교적 혼인관은 “한번 부부가 된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을 알려준다. 신식은 곧 개인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으로 약혼을 진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한 “신식=기독교식”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이 약혼이 과연 관습과 제도의 속박을 벗어난 주체중심의 사고 결과인가에 대한 의문이 표면에 떠오른다. 자유의사 결정이라는 본질은 빠진 채 예수교적 혼인 의례가 신식으로 둔갑했던 것을 두고 서술자는 “위험한 일”이라 언급했던 것이다.

신식 추종자들의 욕망과 행위가 문제에 부딪친 이 국면에서, 형식이 사실적 서사의 주인공으로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문제를 덮어주고 합리화시킬 만한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 이 부분부터 이어지는 형식의 지적인 고백과 내면묘사는 바로 그런 근거가 될 만해 보인다. 첫째 김장로라는 부권(父權)과 금권에 의해 진행된 약혼의 문제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문제를 자각한 형식과 선형은 뒤늦게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미숙한 결정을 수용한다. 이에는 형식의 사랑이 “넓은 시대, 자각 없는 시대에서 새 시대, 자각 있는 세대로 옮겨가려는 과도기의 청년이 흔히 가지는 사랑, 진화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동반된다. 두 번째는 조선의 미래, 신문명 건설을 위해 지식인으로서 배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한 깨달음이다. 형식은 여전히 어린아이인데도 어른 없는 사회에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한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내면독백, 기록이 심한 감정의 표백과 우유부단함,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는 불

안정한 심리는 모두 어른인 채하던 어린애의 것이었다는 깨달음이다. 이러한 성찰의 지속에 의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형식을 중심으로 한 자기 발견, 각성의 서사로 나아간다.

나는 인성을 모른다 니게 무슨 인성의 지식이 있느냐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근본덕(根本的)으로 무엇인지는 설혹 알지 못한다 하어도 적더라도 현지에 니가 세상에 처하여갈 인성관은 잊어야 할 것이다 올흔것을 올타하고 도흔것을 도타고 흘만 흘 무슨 표준은 잊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니게는 그것이 있느냐 나는 과연 즈각흔 사람인가

이러케 생각하미 형식은 즈긔의 어리석고 무식흔것이 눈앞헤 분명히 보이는데도 형식은 눈을 찌셔 선형을 본다 선형은 여전히 가만히 안졌다 형식은 또 생각한다(659면)

그간 이 작품을 교양소설이나 성장소설, 성장과 각성의 서사로 보는 시각은 형식이 이러한 내적 독백을 거쳐 자기모순을 깨달아가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형식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세속적 욕망조차 ‘과도기’의 ‘어린애스러움’으로 변호되고 해석된 것도 이 성찰적 독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으로 서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이 자각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끝까지 미숙하고 열등한 자아로 남는다.

형식의 깨달음은 삼랑진 수해 사건과 기차에서 신문명 건설의 포부를 밝히는 대화 장면으로 이어진다. 불쌍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주 인물들이 굳게 뭉치는 감격적 장면이다.

「나는 교육가가 될납니다 그리고 전문으로는 식물학(生物學)을 연구할납니다 그러나 뜻는 사람중에는 식물학의 뜻을 아는자가 업섯다 이러케 말흐는 형식도 무른 식물학이란 참뜻

은 알지못했었다 다만 자연과학(自然科學)을 중히여이는 스상과 생물학이 가장 즈기의 성미에 마즐뜻하야 그러케 작덩흔것이라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즈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상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상하다(712면)

춘원의 신고육사상, 계몽을 위한 실천으로 내세운 이들의 행동을 서술자 혹은 내포작가는 다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연구하겠다는 형식이나 수학이 좋은 것인 줄만 알 뿐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형의 모습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유학을 떠나 신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당시 지식인에 대한 씩씩한 풍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이 냉정한 서술자의 형상화로 인하여 과도기의 미숙한 청년에게 계몽의 짐을 지워야 했던 시대에 대한 해부로 방향은 바뀐다. ‘그네를 믿는 시대’가 불쌍하다는 자조적인 언급은 지향성은 있되, 그것을 가능케 해줄 실질적인 방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⁴³⁾ 비판하고 행동하는 영웅적 인물을 내세우기보다, 결합과 상처로 비뚤어진 주인공을 거리두기와 풍자로 그려낸 것은 결국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의 이상주의를 작가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음악회와 이후의 장면을 떠올려보자. 삼랑진에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음악회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병욱이다. 실제로 음악회를 하여 돈을 모으는 것도 병욱과 영채, 선형이다. 이 문제를 보고 형식은 과학을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공허하고 당연한 주장을 할 뿐.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실천에 옮긴 사람은 세 여성인물이다. 음악회 이후에 합류한 우

43) 박상준, 『비주체적 주체의 실제 없는 지향성』, 『소설의 숲에서 문학을 생각하다』, 소명출판, 2003, 91-94면.

선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구제를 젊은 여성들이 음악회를 열어 해낸 것에 감동을 받아 참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힌다. 이처럼 마지막에 이 젊은이들의 결심과 행동에서 중심은 형식에게 있지 않다. 각성은 형식의 몫이 아니라, 영채와 병욱의 실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지막회를 장식한 후일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병욱과 영채의 성공적인 유학생화와 활약은 두 단락에 걸쳐 소개되며, 신우선이 문사로서 수양과 저술에 노력하여 문명을 떨치게 되었다고 길게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후일담까지 각 한 단락에 걸쳐 소개된다. 하지만 형식은 선형과 함께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할 예정이라는 짧은 정보만 전달될 뿐 어떤 성취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가 교육자로 신문명을 개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크게 대조가 된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 형식의 위치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형식은 신문명 건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강박적으로 신식을 추종하고 이상과 주장만 내세운 지식인의 부정적인 자화상, 춘원이 있는 힘을 다해 밀어내려 했던 열등한 자아의 초상이었던 것이다.

5. 신식의 강박, 『무정』의 자리

『무정』은 다양한 양식적 특성을 지닌 서사체로서 그 비일관성과 균열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및 태도를 중심으로 『무정』을 분석하여 개화지식인의 부정성에 대한 자기 고백과 고발에서 비판적인 풍자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서술자의 간섭 없이 인물 내면의 생각이나 지각 내용을 직접 제

시하는 내적독백은 주로 형식에 대한 형상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를 시간구조로 인한 착오, 욕망의 은폐와 서술전략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형식의 과도한 내면심리 묘사와 독백은 이야기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시간 체감에서 착오를 일으켜 사건의 줄속적 진행을 마치 신중한 고려 결과인 것처럼 포장한다. 또한 과장되다 싶게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고민과 갈등을 표현하여 형식의 부정적 욕망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킨다. 장황한 논설로 연결되는 53회와 65회의 내용은 참자아의 발견, 근대적 주체의 자유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춘원의 논설과 연결하여 이 소설의 중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후의 서사적 맥락 속에서 볼 때 주체성의 발견이라는 이 거창한 자각은 형식의 세속적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수차례의 깨달음과 성찰이 형식의 뒤편에서만 끝까지 긍정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서술자가 냉정한 거리를 두고 형상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무정』에는 김종렬이나 배학감, 김장로와 이형식 등 개화기 지식인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난다. 주로 서구의 신지식에 대한 허세와 과시, 무조건적 추종을 보여주어 신식에 대한 강박증이 희화화되어 나타난다. 또 신문물, 신지식과 교양에 대한 당대의 욕망과 현실의 격차가 풍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장로의 신식 추종의 행태와 약혼식의 장면은 이 작품을 통틀어 가장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서술자의 지적대로 장난처럼 결정된 이 위험한 사건에 의해 이형식은 다시 풍자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다. 형식이 비록 우유부단한 과도기의 유치함을 거쳐 스스로 각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 그 역시 “대 사회적 당위 명제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고 만다.⁴⁴⁾ 춘원은 자기와 당시 지식인의 모습에서 이런 열등한 자아를 보았고, 나약하고 무지한 개인이

44) 우찬제, 『한국소설의 고통과 향유』, 『문학과 사회』 12, 1999. 겨울.

겹도 없이 시대의 짐을 짊어지려 한 모습을 고백과 풍자를 통해 매우 솔직하게 그려내었다. 형식은 춘원의 열등한 자아, 신식과 사회적 당위에 매몰된 개화지식인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본고가 『무정』에서 “신식의 강박과 이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는 가운데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근대적 각성을 보여주는 주체에 대한 서술자(내포작가)의 지속적인 거리 조정과 양식상의 균열이었다. 이제 이 논의에서 살펴 본 고백과 풍자의 양식적 특성이 기존의 다양한 장르적 규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정』을 둘러싼 ‘소설 양식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미숙하거나 전근대적인, 혹은 미완성의 양식들에 대한 실험으로부터(이런 양식을 폐기하거나 극복하고) 서구의 근대적인 서사장르(노벨)로 진화해 나간 것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각은 전통에서 서구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혹은 과거에서 현재로의 문학적 관습(양식)의 변화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지적되었듯, 『무정』에는 로맨스적 전통과 근대소설적 성격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으며, 계몽적 성장소설이자 대중적인 연애소설로도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한 인물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자기 고백에서 풍자적인 서술까지 다양한 양식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비일관적이고 균열된 형태로나마 동서양의 다양한 산문전통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작품에서 실험된 다양한 산문형식이야말로 서사장르의 보편적인 양식의 원형으로 볼 여지도 있다.⁴⁵⁾ 『무정』에

45) 이 부분에서 장르 진화론적 입장을 벗어나 독창적인 장르론을 펼친 프라이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산문픽션의 지속적인 형식, 지배적인 문학관습으로 로맨스와 노벨, 고백과 해부의 형태를 들었다. 이 네 가지는 상호 배타적 이거나 우열을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에도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라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를 테면 로맨스는 전근대적 장르가 아니라, 중세에서 현재까지 그 이상화된 세계에 대한 구조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프라이는 보고 있다. (N. 프라이, 앞의 책, 429-444면) 이런 시각에

서 다양한 서사양식의 실험과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양식이 분화하고 변형되어 1930년대의 다양한 형태의 소설이 나타났다는 설명 또한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서사장르의 맹아적 형태의 혼합, 이 역시 “신식의 강박”이 낳은 『무정』의 새로움이라면 새로움일 터이다.

기대어 본 연구의 결과까지 종합할 때, 『무정』에는 프라이가 지정한 산문픽션의 네 가지 형태가 불완전하기는 하나 비일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식연구가 서양의 문학전통 속에서 추출된 연역적 양식론인 까닭에 더 이상의 접근은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 이광수, 김철 교주,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3.
-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96-109면.
 _____,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출판부, 2008, 27면.
- 김동인, 『春園研究』, 신구문화사, 1956, 28, 29면.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90-91면.
- 김지원,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 1983, 117-120면.
- 박상준, 『소설의 숲에서 문학을 생각하다』, 소명출판, 2003, 91-94면.
- 양문규, 『한국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2003, 98면.
- 이희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301면.
- 정재석, 『한국현대소설의 시간구조』, 새미, 2004, 91-95면.
- 조건상, 『한국현대골계소설연구』, 문학예술사, 1985, 22면.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270면.
- 하타노 세츠코, 『무정을 읽는다』. 최주한 옮김, 소명출판, 2008, 209-210면.
- 양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1992, 21-23면.
- N.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6, 429-447면.
-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접탈 - 『무정』의 근대성」,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 새미, 2000.
- 김영찬,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표상」, 『상허학보』 16, 2006.
- 김정자, 『한국근대소설의 시간기법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84.
- 서대석, 「韓·中 笑話의 비교연구 - 無識譚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5집, 2006.
- 서은혜,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자기-서사’적 특성」, 『춘원연구학보』 7, 2014.
- 성현경, 「<무정>과 그 이전 소설」, 『어문학』 32호, 1975.

- 손자영,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고백서사적 특징 연구』, 『이화어문논집』 42집, 2017.
- 염인수, 『초기 현대소설의 서술화법』, 고대 박사논문, 2014.
- 우찬제, 『서술상황과 작가의 욕망의 관련양상 연구-이광수의 『무정』의 시점 분석』, 『현대소설연구』 5, 1996.
- _____, 『한국소설의 고통과 향유』, 『문학과 사회』 12, 1999. 겨울.
- 윤홍로, 『무정의 전통성과 근대성』, 이광수, 『무정』, 우신사, 1992.
- 이만영,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과 계도적 미학의 길 - 이광수의 문학과 『무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센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 이선경, 『1910년대 이광수의 장르 실험』, 『한국문학연구』 29, 2015.
- 이유진, 『일본에서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문학사적 의의』, 『춘원학보』 10호, 2017.
- 최주한, 『번역된 (탈)근대론으로서의 『무정』 연구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7집, 2013.
- 황정현, 『이광수 소설연구사』, 고대 박사논문, 2009.

<Abstract>

The Obsession with New(Western)-style,
Between Confession and Satire
—The Genre Characteristics and the Narrative
Distance in *Mujeong*(Heartlessness, 『무정』)—

Lee, Sa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to investigate that 『무정』 is a kind of mixture in which various forms are incoherently combined. Second, it is to analyze and interpret 『무정』, focusing on confession and anatomy.

The form of confession is mainly revealed through the figure Hyung-sik. Through a boring psychological description and an inner monologue, his hasty decision is shown as if it were a carefully-drawn conclusion. And his improper desire is concealed. His thought about the discovery of the modern subject become grounds for rationalizing his worldly desires.

The form of anatomy is mainly revealed through the criticism and satire on the negative side of Hyung-sik, Jong-ryul Kim, and Bae, who is the dean of Kyongsung school and the ruling elder Kim. The caricature of their pretension for ‘New(western)-knowledge’ shows the obsession with the new style. To the end, Hyong-sik is depicted as a weak, impractical and ignorant idealist. Although he conveys the contents of the awakening that represents the artist's thoughts, it can



be said that he is the inferior self and the shadow of the author.

Through this discussion, it is confirmed that 『무정』 is a mixture of various western epic genres in a germinal stage form. This is also the newness of 『무정』 generated by the author's obsession with the new style.

Key words: Lee Kwang-soo, *Mujeong*(Heartlessness, 『무정』), obsession with the 'New(Western)-style', confession, anatomy, anisochronies, satire, narrative distance

투 고 일 :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